

퇴직연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
회사가 전적으로 퇴직금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던 이전과 달리
직접 퇴직금을 운용,
관리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위주의 시장이
DC형과 IRP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인은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DC·IRP 시대 본격 도래
**퇴직연금 자산
이제 내가 키운다**

COVER
STORY

2016
vol. 49



Contents

2016 vol.49



06



38



36

06 COVER STORY
리빙 칼럼 | 퇴직연금, 개인이 운영하는 DC·IRP 시대 활짝

PART 1 DC·IRP가 부상하는 6가지 이유

08 01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DC형 도입 회사 증가

09 02 성과연봉제 확대로 DC형 장점 부각

10 03 경영성과급, DC형으로 받으면 세 부담 '훌쩍'

11 04 DC형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

12 05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은퇴자 증가

13 06 DC·IRP 추가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PART 2 DC·IRP 실전 운용 가이드

14 30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DC·IRP 자산 관리·운용의 모든 것

16 A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17 B IRP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18 C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9 D DC형·IRP로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20 E DC형과 IRP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23 F 운용하던 상품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4 G DC형과 IRP를 직접 운용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25 H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연금, 쉽게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

26 I DC형과 IRP를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27 J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하나요?

28 K IRP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0 L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32 **명사 인터뷰**
국내 최고 노화 연구 권위자 박상철 석좌교수
"노화는 퇴화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내는 성스러운 변화"

34 **노인대국, 일본은 지금**
'편의점 난민'을 구하라

36 **대중문화로 보는 은퇴**
어려서는 어른의 세계가, 나이 드니 자식의 세계가 궁금해지는 영화 '대부'

38 **괜찮아, 귀촌**
꿈을 이루기 좋은 곳, 시골

40 **Books <노후 파산>**
노후 파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COVER STORY

DC·IRP 시대 본격 도래 퇴직연금 자산, 이제 내가 키운다

퇴직연금 시장이 변하고 있다. 회사가 전적으로 퇴직금의 운용과 관리를 담당하던 이전과 달리 직접 퇴직금을 운용, 관리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다.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 위주의 시장이 DC형과 IRP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인은 퇴직연금 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DC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제도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DC·IRP 시대 본격 도래-퇴직연금 자산, 이제 내가 키운다

퇴직연금, 개인이 운용하는 DC·IRP 시대 활짝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이전까지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대부분 회사가 운용, 관리해왔다. 하지만 최근 퇴직급여의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정부의 IRP 세제 혜택 강화 등으로 투자 유연성과 세제 혜택이 높은 DC형과 IRP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글 김동업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dy.kim@miraesasset.com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처음 제도 도입을 논의하던 때만 해도 DB형과 DC형 중 어떤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은 DB형과 DC형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도입해 회사와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만 해도 DB형을 선택하는 기업이 많았다. 무엇보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퇴직금 계산 방식이 동일한 데다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DC형은 근로자에게 다소 낯설었다. DC형이란 회사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해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를 운용할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이에 따른 책임도 근로자가 져야 한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남들보다 퇴직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C형보다는 DB형을 선호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많았다.

퇴직급여 운용 주체, 회사에서 개인으로 이동

그런데 최근 퇴직연금 운용 주체가 회사에서 근로자와 퇴직자 등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DB형과 DC형의 가입자 비중을 살펴보자.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는 DB형 가입자는 2012년 63.3%에서 2015년 58.2%로 감소한 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C형 가입자 비중은 같은 기간 34.7%에서 40.4%로 크게 늘어났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사업장 비중을 보면 이 같은 변화는 더욱 두

드러져 보인다. 같은 기간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49.7%에서 29.4%로 크게 감소한 것과 달리 DC형을 도입한 사업장은 33.4%에서 57.4%로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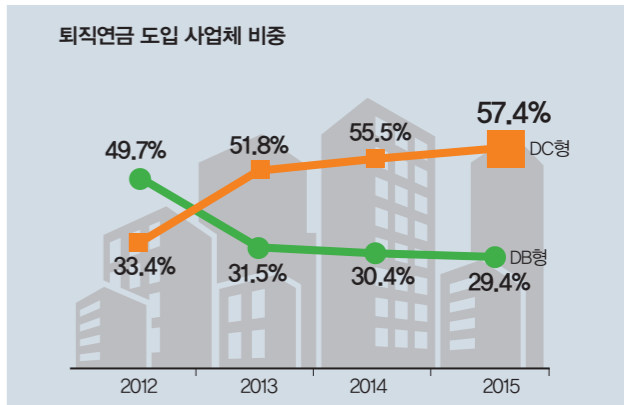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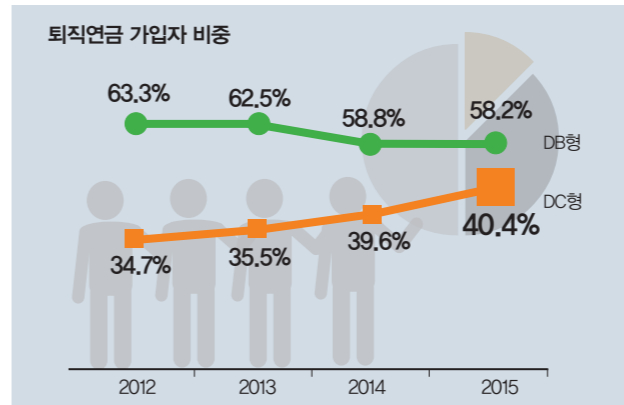
DC형을 도입한 사업장과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적립금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DC형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7.8%에서 2013년에는 20.1%, 2014년에는 21.7%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22.5%까지 늘어났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이 126조4000억 원인데, 이 중 28조4237억 원이 DC형 적립금이다.

DC형뿐만 아니라 IRP 적립금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면서, 늘어난 한도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세제 혜택 확대로 지난해 근로자가 IRP에 추가로 적립한 돈이 6556억 원이나 늘었다. 직전 연도(813억 원)와 비교해 적립금이 8배 가량이나 늘어난 셈이다.

개인 관리 퇴직자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이유 4가지

이처럼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자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하는 첫 번째 이유로 기업의 임금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고령화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늘어난 근무기간 동안 임금피크제와 함께 DC형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것도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영하고 책임지는 제도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efined Benefit)·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



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급여와 함께 퇴직금 수준도 오르락내리락하게 되므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연봉제와 함께 DC형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적립해주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두 번째로,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에 따른 은퇴자의 증가도 주요 요인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5월 연령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피보험자 수가 1247만5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10년 내 직장에서 퇴직하게 될 것이다. 이 퇴직자들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자연스럽게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급여 자산 규모가 커지게 된다. 물론 퇴직급여가 고스란히 IRP에 남아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점에서 세 번째 요인이 중요한데, 바로 세제 혜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 이후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경감받게 되었다. 이 같은 세제 혜택이 알려지면서 연금 수령자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퇴직자 중에서 퇴직급여를 IRP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는 사람 비중이 지난해 1분기 3.1%에서 4분기에는 7.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 원 확대한 것도 DC형과 IRP 적립금을 늘리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으로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의 퇴직

연금 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84.4%인 데 반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비율은 15.9%에 머물고 있다. 결국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영세사업체의 경우 DC형 도입 비중(60.5%)이 높은 점을 감안해볼 때 향후 DB형보다는 DC형 가입자와 적립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어떻게 하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주체가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면서 자산 운용이 숙제로 남게 됐다. 현재 DC형 적립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원리금 보장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6.5%나 된다. IRP의 경우도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67.8%로 압도적으로 높다. 물론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면서 원리금까지 보장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1.61%(2016년 6월 기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원리금 보장상품만 고집할 순 없다. 그렇다고 은퇴 후 주요한 생활비 재원이 될 퇴직연금을 무턱대고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거나, DB형에서 DC형으로 이행하면서 목돈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자산 운용,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를 꼼꼼히 읽어보고 '감'을 잡아보기 바란다. ▣

01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DC형 도입 회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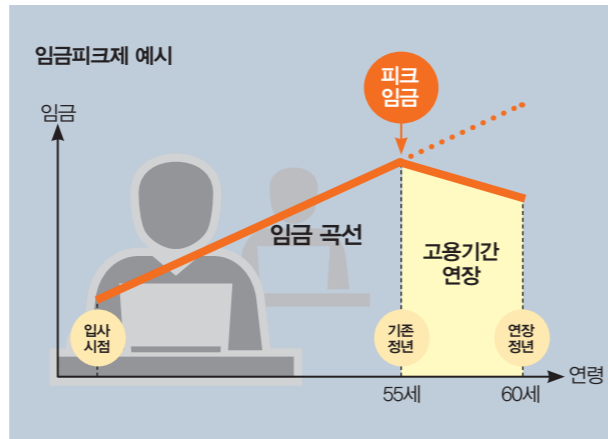
김상수(55) 씨는 철강업체인 B사에 근무하고 있다. 김 씨가 다니는 회사는 2007년에 정년을 만 55세에서 57세로 늘린 이후 2011년에는 58세, 2013년 60세로 계속 연장해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B사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근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 적용 첫해부터 만 56세까지는 임금을 동결하고, 만 57세에 10%, 58세에 추가로 10%를 감액한 후, 만 59~60세에는 다시 동결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급여를 일괄 정산하고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제도를 바꾸었다.

2016년은 정년 연장 제도가 시작된 첫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원들의 정년을 60세로 늘려야 하며,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도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6년 4월 300인 이상 사업장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42.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로 평균임금 줄어지면 퇴직금도 감소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되는 대신 늘어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근로자의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DB형이나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 연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해 퇴직급여를 계산한다.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



령한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함께 줄어들게 된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위해 DC형 도입이나 전환 늘어

반면 DC형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DC형은 별도의 근로자 계좌에서 운용되며, 나중에 받는 퇴직급여 규모는 주로 해당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령을 제정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거나 별도의 퇴직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DC형도 같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02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연봉제 확대로 DC형 장점 부각

A기업에 15년 넘게 일하고 있는 박문종 과장은 최근 회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A기업은 생산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했는데, 기존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하면서 성과연봉은 평가에 따라 S, A, B, C, D 5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토록 했다. 박 과장은 처음에는 조금 불안했으나, 회사가 기본연봉 자체를 지금보다 상당 부분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안심한 상태다.

한국의 전통적인 임금체계는 근무연수가 쌓이면 월급도 따라 오르는 호봉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근로자의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이른바 성과연봉제가 산업 현장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2016년 5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으로 임금을 주는 기업의 비율은 2012년에는 75.5%였으나 2015년에는 65.1%까지 줄어들었다. 3년 사이에 10%가 넘는 기업이 성과연봉제로 돌아섰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공공기관들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의 세부적인 방식은 도입하는 기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달리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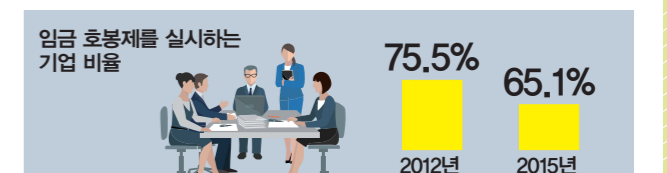
성과연봉제, 임금뿐 아니라 퇴직급여에도 영향 미쳐

이러한 성과연봉제는 비단 근로자의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임금에 연동되어 금액이 산정되는 퇴직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앞의 사례에서 언급한 A기업의 퇴

직연금 제도가 DB형이라고 가정해보자. 박문종 과장이 향후 계속 좋은 성과를 내서 지금보다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한다면 문제는 없다. DB형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임금이 오르는 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임금도 오르고 퇴직급여도 증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박 과장이 향후 안 좋은 성과를 내서 임금상승률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문제가 생긴다. 퇴직급여 자체가 기존의 임금체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줄어들게 된다. 성과란 것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연봉이 많이 오를 수도, 조금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연봉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소중한 노후 소득원인 퇴직연금까지 지나치게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면 이 부분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DC형 도입이 대안 될 수 있어

다행히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되고, 그 이후 운용 수익률에 의해 퇴직급여 규모가 변한다. 연봉이 많이 오르면 많은 대로, 적게 오르면 적은 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DB형이 가장 최근 시점의 연봉만 반영해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 더 성과연봉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이유로 DC형을 추가 도입하는 추세다. 향후 성과연봉제가 확산될수록 DC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03 경영성과급, DC형으로 받으면 세 부담 '훨쭉'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수령

최기문(50세) 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객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이 회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 연봉자일수록 경영성과급 세 부담 높아

최근 경영성과급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적립해주는 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세 부담도 줄이면서 퇴직 후 노후생활비 재원도 마련해주려는 목적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6~38%)로 돼 있다. 따라서 같은 크기의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객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소득세 실효 세율이 각각 24%인 근로자 A와 35%인 근로자 B가 있다고 치자. A와 B 모두 연말에 경영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령액은 차이가 난다. A는 1000만 원 중 24%를 세금으로 뺀 760만 원을 받지만, B는 350만 원의 세금을 빼면 650만 원을 받는다. 고객 연봉을 받는 근로자일수록, 경영성과급 규모가 커질수록 절세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적립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35%
1억5000만 원 초과	38%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퇴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경영성과급, DC형 계좌에 적립하면 세 부담 크게 줄어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세금 계산 방식이 다른 데다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가볍다. 근로소득과 달리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인 점을 감안해 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효 세율이 3~7%로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그 부담이 덜하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추가로 30% 경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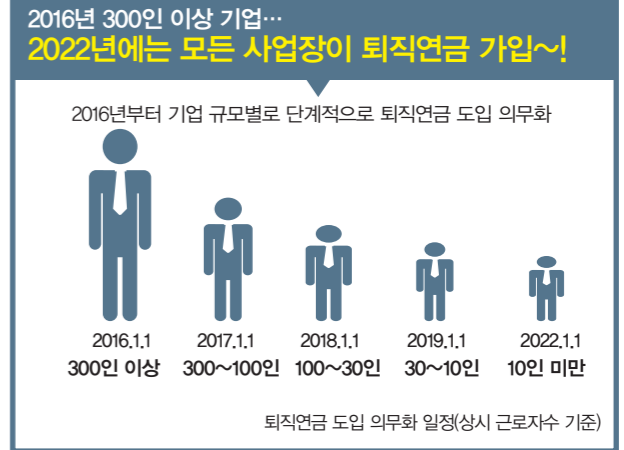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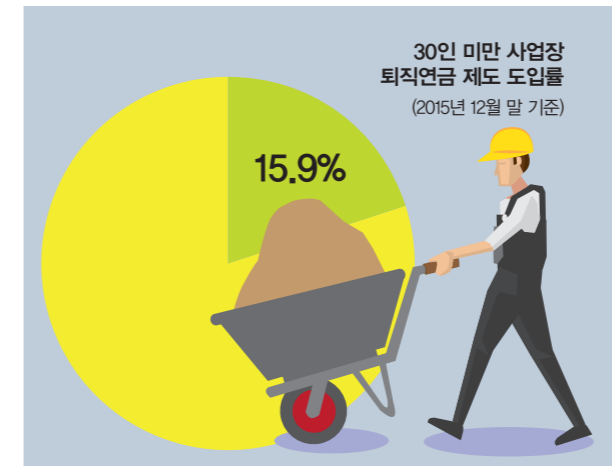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영성과급을 일시에 수령해 바로 소진해버리는 것보다 이를 퇴직금으로 받으면 든든한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면 국민건강보험료와 같이 근로소득에 비례해서 납부금액이 결정되는 4대 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하지만 이를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 같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04 DC형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가속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반월공단의 한 비료 제조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김봉국 과장은 회사가 최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되었다. 회사는 전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인세를 절감하고 근로자의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DC형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2만6383개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퇴직연금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5년 말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은 15.9%만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5곳 중 4곳이 퇴직연금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DC형 혹은 DB형 가운데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호할까?



DC형- 낮은 임금상승률 만회 가능, 자산 운용 부담 덜어

상대적으로 DC형이 더 선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DC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저성장으로 인해 낮아진 임금상승률을 자산 운용으로 만회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만약 도산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의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한편 회사 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나쁠 것이 없다. 자산 운용과 관리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회계 처리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도 훨씬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DC형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분기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30인 미만 사업장 4곳 중 3곳이 DC형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 3분기 동안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2만2315개 사업장 중 1만6930개 사업장(75.87%)이 DC형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2015년 말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절반 이상(60.5%)이 DC형을 도입한 상태다.☞

05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성장하는 IRP 시장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은퇴자 증가

올해 만 60세인 김정년 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회사에서는 법정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까지 준비했다. 노후생활의 기반이 될 소중한 자금이다. 김 씨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개설했으며, 이를 일시금으로 찾을지 IRP에서 계속 운용하며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 중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에 접어들었다. 712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가운데 137만 명(19%)이 60세를 넘어섰다.

올해 74만 명, 내년 78만 명 등 2023년까지 매년 80만 명이 은퇴 연령에 들어선다. 이렇게 은퇴자가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인 IRP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퇴직급여,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실제로 IRP의 성장세는 무섭다. 2014년 말과 비교하면 그 성장세를 뚜렷이 알 수 있다.

2015년 말 IRP 적립액 규모는 전년 대비 44% 성장한 10조9000억 원이다. 계좌 수 역시 크게 늘었다. 1년간 94만 개의 계좌가 신규 개설돼 전년 대비 65.4% 성장한 238만 개에 달한다.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IRP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하기보다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2015년 IRP로 입금된 퇴직급여(제도전 환분) 14조 원 가운데 11조7000억 원은 인출되고 3조3000억 원이 남았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일시금으로 찾는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혜택(퇴직소득세의 30% 감면)이 주어 진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임원퇴직자, 명예퇴직금 수령자와 같은 고액의 퇴직급여 수령자들은 이러한 절세 혜택을 누리하고자 IRP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세금 할인 폭은 동일하지만 절세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퇴직연금 계좌 중 연금 수령 계좌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전체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자가 차지하던 비중이 2014년 대비 50%가량 증가했다(2014년 4.8%→2015년 7.1%).



06 정부의 세제 혜택 강화

DC·IRP 추가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상향

김영웅 부장은 해마다 12월 무렵이면 연말정산 걱정이 태산이다. 소득 수준은 높는데 공제받을 내용이 별로 없어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도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부장은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싶다. 김 부장이 노후 준비를 하면서도 동시에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일 중 하나가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계좌에 추가로 적립한 금액이 급증한 점이다. 2015년 퇴직연금 가입자 추가적립금은 71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0% 급증했으며, 그중 IRP가 6556억 원(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갑자기 IRP 적립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액공제 늘리니 IRP 적립금액 저절로 늘어

2015년에 확대 시행된 세액공제 혜택이 IRP 적립금을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전까지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 IRP)을 합산해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300만 원은 퇴직연금에 적립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금저축 계좌에 매년 400만 원을 납입 하던 근로자가 퇴직연금(DC,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총 7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금저축 계좌 없이 퇴직연금(DC, IRP)에만 700만 원을

입금해도 납입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퇴직연금 계좌 없이 연금저축에만 700만 원을 입금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400만 원이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 증가 효과가 커지면서 근로자들이 IRP 세액공제 혜택에 큰 관심을 갖게 됐다.

DC·IRP 계좌의 추가적립금에 대한 일반적인 세액공제율은 13.2%다. 하지만 2015년부터 총 급여가 연간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이 16.5%로 상향됐다. 정부가 서민들의 노후 준비를 돕고자 세액공제율을 3.3%포인트 높인 것이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IRP 가입 가능해져

정부의 이러한 세제 혜택 강화 덕분에 지난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IRP에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 전년 대비 8배 넘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계획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 금융상품은 연금저축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IRP 가입이 가능해지면 종합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의 IRP 추가 적립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PART·2



30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DC·IRP 자산 관리·운용의 모든 것!

기본

A DC 개념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Q1 DC형은 퇴직금 제도·DB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 Q2 회사가 DC형 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 Q3 본인의 DC형과 IRP 운용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p16

B IRP 개념

IRP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Q4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 Q5 IRP의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p17

C 경영성과급 수령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6 우리 회사에서도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 Q7 DC형 계좌로 수령하길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p18

D 목돈 관리

DC형·IRP로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 Q8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DC형 계좌로 한꺼번에 받았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 Q9 이직하면서 IRP로 수령한 퇴직연금 목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p19

언제·어디

E 퇴직연금 운용

DC형과 IRP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 Q10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나요?
- Q11 금리가 너무 낮는데,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Q12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에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 Q13 ETF로도 운용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p20-21

F 상품 변경

운용하던 상품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Q14 상품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Q15 부담금, 적립금이 뭔가요?
- Q16 상품을 변경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p23

G 운용 위탁

DC형과 IRP를 직접 운용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 Q17 알아서 운용해주는 상품이 없나요?
- Q18 퇴직연금 대표상품 제도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p24

H 연금 통합 관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연금, 쉽게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

- Q19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 Q20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IRP 계좌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p25

왜

I 중도 인출

DC형과 IRP를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 Q21 주택 매입을 위해 중도 인출을 하고 싶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Q22 다른 이유로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없나요?
- Q23 IRP에서 중도 인출을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자세한 내용은 p26

J 퇴직연금 수령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하나요?

- Q24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Q25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Q26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자세한 내용은 p27

K 퇴직연금 인출과 세금

IRP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Q27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Q28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자세한 내용은 p28-29

L 연금 수령 한도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Q29 1년에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 Q30 연금을 초과 수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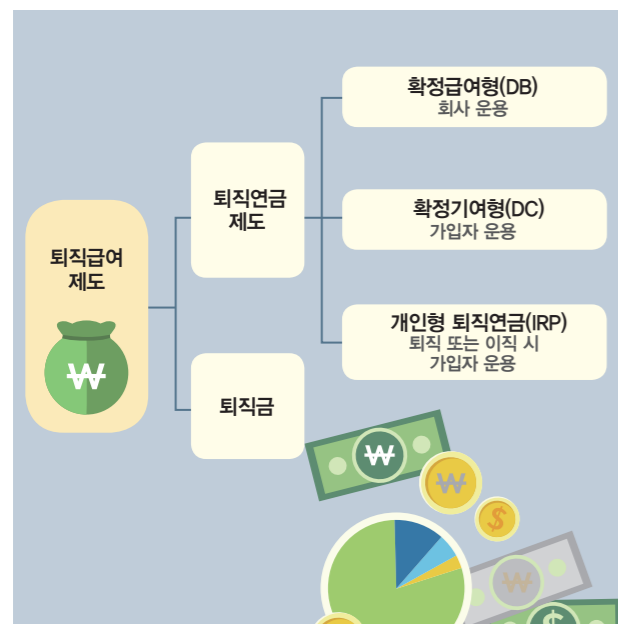
A DC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Q 01

DC형은 퇴직금 제도·DB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급여의 운용 주체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고 책임집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연, 분기, 월 단위로 회사로부터 수령해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반면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급여는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계좌로 이체하지 않습니다.



Q 02

회사가 DC형 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시한 금융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계좌를 통해 퇴직연금을 연이나, 분기 혹은 월 단위로 받게 됩니다. 액수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받습니다.

Q 03

본인의 DC형과 IRP 운용 현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지점 방문을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입금 내역과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DC형과 IRP 자산 운용 수익률을 확인해 퇴직연금이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 입금됐고,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매 적립 시점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연금포털 사이트(100lifeplan.fss.or.kr)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를 방문하면 본인의 DC형 퇴직연금뿐 아니라 IRP 적립금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포털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운용 현황과 입금 내역 등은 본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B IRP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Q 04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이직이나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를 관리하려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IRP를 만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이 중 55세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할 때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라도 55세 이상이거나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IRP를 반드시 개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려는 근로자들도 본인의 퇴직급여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DC형 근로자는 DC형에 추가 납입해도 되고, IRP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도 됩니



다. 그러나 DB형 가입자는 반드시 IRP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는 아쉽게도 IRP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직 경력이 있어서 IRP 계좌가 있으면 기존 IRP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05

IRP의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IRP는 크게 네 가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소득세 환급**입니다.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원천징수되는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아 운용하면 좀 더 많은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IRP에 추가 적립한 돈에 대해 최대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세 이연**입니다.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금융상품은 해지 혹은 환매할 때 이자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하는데, IRP에서 운용한 금융상품은 퇴직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지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IRP에 가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 대비 세금을 30% 할인받습니다. 세액공제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은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는 일반 금융상품을 운용할 때 납부하는 이자 배당소득세율 15.4%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것입니다.

C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06

우리 회사에서도 경영성과급을 DC형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없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수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영성과급 납입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 DC형 가입자 전원에게 동일한 경영성과급 납입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성과급 중 50%를 퇴직급여로 적립하기로 정했다면, 모

든 임직원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는 경영성과급의 80%를 적립하고, 누구는 30%만 적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07

DC형 계좌로 수령하길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수령이 명시돼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무조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립 방식이 최초로 정해진 날 또는 변경된 날에 근로자가 향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경영성과급을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성과급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임금상승률 높은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유리

임금상승률 높은 근로자, DB형 선호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들은 DC형보다 DB형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계좌로 이체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다. 따라서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DC 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DB형은 퇴직급여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그리고 근로자는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계산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다. 퇴직하기 직전 평균임금(30일분)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된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출 기준이 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 근로자들은 DB형을 선호한다.

퇴직금은 DB에, 경영성과급은 DC에 적립하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그렇다면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형이 유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근로자의 DC계좌에만 적립할 수 있다. 이때는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혼합형이란 한 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DB와 DC에 나눠서 적립하는 것인데, 적립비율은 회사와 노조가 합의해 정하므로 근로자가 개별 선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 중 상당비율은 DB로 적립하고 최소비율만 DC형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을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을 DC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D DC형·IRP로 목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Q 08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DC형 계좌로 한꺼번에 받았는데,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회사에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의 퇴직급여를 목돈으로 받게 됩니다. 비단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DC형 전환뿐만 아니라 DC형을 처음 접하는 근로자 또한 목돈 운용을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목돈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은퇴 이후 퇴직연금 외에도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목돈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란 시차를 두고 조금씩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투자 시점을 분산할 수 있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유형의 '펀드'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양한 자산에 분산하면 투자 위험은 감소하니까요.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여러 펀드에 나눠 투자한다고 **분산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운용사의 성장주 펀드에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도 한국의 성장주 전체가 하락하면 모든 펀드 수익률이 동시에 악화돼 투자 위험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장주, 선진국의 헬스케어 관련 주식, 신흥국의 소비 관련 주식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에 투자해야만 위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은퇴 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ELB 등의**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예금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잘 분산된 해외 채권형펀드 등의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DC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근로자는 목돈뿐만 아니라 퇴직 전까지 받게 될 부담금(회사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넣어주는 돈)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부담금을 매 월 혹은 분기 및 반기 그리고 연 단위로 받습니다. 근로자는 부담금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금은 시간 간격이 있어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09

이직하면서 IRP로 수령한 퇴직연금 목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이직하면서 목돈의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합니다. IRP에 있는 목돈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돈 운용의 성과에 따라 은퇴 후의 자산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연금 목돈을 IRP에서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목돈 전부를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안전하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얻어서 충분한 노후자금을 만들고 싶다면 목돈의 상당 부분을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퇴직까지 남은 운용기간이 상당한 근로자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원본 손실 위험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소개한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까지 더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위험은 낮추고, 시중금리 이상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 DC형과 IRP는 어떻게 운용해야 하나요?



Q 10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나요?

DC형이나 IRP 가입자는 증권사의 원리금 보장 ELB(주가지수연계사채)나 보험회사의 원리금 보장 보험, 은행의 정기예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리금 보장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 중 하나를 골라 운용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품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ELB**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으로, 증권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합니다. ELB는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 위주로 운용하는데, 평균적으로 정기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가입할 때 약정한 이자를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대부분의 ELB는 일반 ELS 증권과는 달리 손실구간 혹은 기초자산의 조건이 없습니다.

원리금 보장 보험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상품으로, 크게 '이율보증형'과 '금리연동형'이 있습니다. 이율보증형 보험은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처음 가입할 때 약정한 이율(이자)을 제공하는데, 이율은 발행하는 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금리연동형 보험은 매달 보험사가 발표하는 공시이율을 가입자에게 제공합니다. 매달 바뀌는 공시이율은 앞으로 적립할 퇴직연금뿐 아니라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에도 적용됩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은 각 상품의 만기에 따라 이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가입 당시에 정해진 이자를 제공합니다. 만약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가입자의 별다른 운용 지시가 없으면 동일한 만기의 정기예금에 재가입

됩니다. 재가입할 때의 이자는 재가입 시점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Q 11

금리가 너무 낮는데,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는 크게 **펀드**와 **실적배당형 보험**이 있습니다. 펀드란 전문가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또한 실적배당형 보험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로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해 운용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모두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자산을 기초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예금 금리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전체 퇴직연금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정부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비중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C형과 IRP 가입자는 주식, 전환사채 등의 고위험 상품은 투자가 금지되어 있으며, 주식형펀드의 비중도 전체 자산의 7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12

펀드나 실적배당형 보험에 투자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투자 대상과 시기를 분산하고 장기 투자를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대상을 분산해 운용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면 개별 상품이 지닌 위험을 다른 상품으로 분산해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과 글로벌 시장으로 분산하면 수익성은 높이고 위험은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시기를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투자시기를 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돈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분할 매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분할 매수 서비스란, 목돈에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떼어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매 월, 분기, 반기 간격으로 받는 부담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시점이 자동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채권 시장은 대체로 우상향(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상승)하는 성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인 제시 리버모어가 말했듯이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인 셈이죠.

Q 13

ETF로도 운용할 수 있나요?

상장지수펀드(ETF)는 특정 자산과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펀드로,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ETF로도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ETF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시장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펀드는 투자하거나 환매할 때 하루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ETF는 투자 혹은 환매하는 당일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및 환매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의 장점인 분산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까지는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투자 가능한 ETF의 수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직접 실물 주식으로 운용하는 ETF만 허용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2016년 7월부터 '합성 ETF 투자'가 허용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도 다양한 해외채권지수나 해외주식지수에 투자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소수의 금융기관에서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다이나믹 증권자투자신탁호(채권)

해외채권 펀드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이제 채권투자에도 글로벌 자산배분의 시대가 열립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전 세계 주요 채권시장을 분석하여,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한 분산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제시합니다.
 국내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춘 해외채권형 펀드!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다이나믹 펀드가
 글로벌 채권투자의 길을 열어드립니다.

상품개요			
상 품 명	미래에셋 퇴직플랜 글로벌다이나믹 증권자투자신탁호(채권)		
투 자 목 적	전세계의 채권에 투자하는 모펀드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의 등의투자수익 추구		
참 조 지 수	[정기예금금리+150bp] (50%) + [KIS종합채권지수] (50%)		
환 해 지	이 펀드는 환해지를 시행합니다. ※ 환해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 위험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 위험이 노출될수 있음		
환 매 방 법	17시 이전 : 제3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후 : 제4영업일 기준가를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환 매 수 수 료	없음		
구 분	지급 비율(%)		
	종류 C	종류 C-F	
총 보 수	판매보수	연 0.30%	연 0.00%
	운용보수	연 0.25%	연 0.25%
	신탁보수	연 0.03%	연 0.03%
	사무관리	연 0.02%	연 0.02%
	보수합계	연 0.60%	연 0.30%

F 운용하던 상품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14

상품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로자들은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변경하려면 본인의 퇴직연금 이 적립돼 있는 금융기관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크게 '배분비율을 변경하는 방법'과 '교체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배분비율 변경이란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들 간의 투자비율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교체 매매는 기존에 운용하던 상품을 전부 혹은 일부 해지한 후 새로운 B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Q 15

부담금, 적립금이 뭔가요?

근로자가 퇴직연금 상품을 변경하다 보면 '부담금'과 '적립금'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부담금**이란 회사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계좌에 납입해주는 돈이고, **적립금**이란 이미 납입한 돈과 이를 운용해 얻은 성과를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담금은 새로 납입하는 돈, 적립금은 이미 쌓여 있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선정하고 그 비율을 결정할 때 부담금과 적립금을 따로 구분해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배분비율 변경과 교체 매매를 부담금과 적립금에 각각 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쌓인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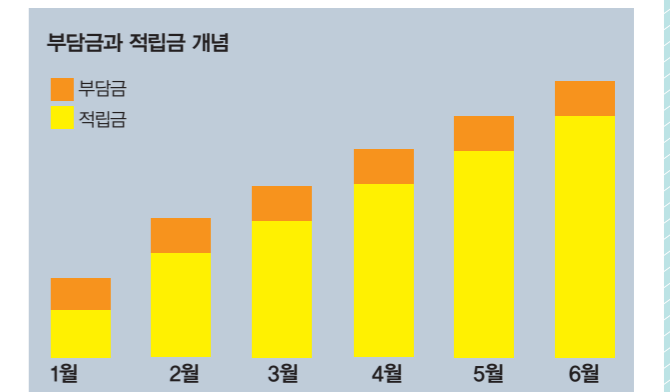
립금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납부할 부담금만 변경하고 싶다면 '부담금 투입비율'만 변경하면 됩니다.

Q 16

상품을 변경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상품을 변경할 때 주의할 사항은 운용하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 만기 전에 상품을 해지하면 가입 시 약정했던 이율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의 만기를 정확히 확인한 후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투자하던 **실적배당형 상품**을 변경할 때는 환매주기와 수수료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투자하던 실적배당형 상품을 환매하려면 짧게는 4일에서 길게는 8일 까지 소요됩니다.

따라서 기존 상품을 환매한 후 신규 상품에 투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몇몇 실적배당형 상품은 환매할 때 수수료가 있으므로 환매 시 **운용상품의 수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G DC형과 IRP를 직접 운용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Q17

알아서 운용해주는 상품은 없나요?

금융기관에서 상품 선택과 투자비중 조절을 알아서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형태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증권사에서는 주로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랩어카운트는 여러 자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해주는 '자산종합관리계좌'를 말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직접 투자랩'과 펀드 등의 간접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DC형과 IRP에 제공되는 랩어카운트는 '펀드랩'입니다. DC형과 IRP는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권사들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펀드랩은 일반적으로 고수익추구형, 중수익추구형, 안정추구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추구형은 주식 비중이 높고, 안정추구형은 주식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선호도에 맞는 유형을 골라서 투자하면 됩니다.

보험사의 경우는 **모델 포트폴리오(Model Portfolio)**를 활용한 보험이 자동운용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그 안에 수많은 여러 펀드가 편입돼 있으며, 보험사의 자산 운용 전문가가 해당 펀드들을 선정하고 비율을 조정해줍니다. 다만, 모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경우는 랩어카운트나 모델 포트폴리오 보험을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자산배분형펀드**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펀드는 펀드 내에 여러 가지 다른 펀드들이 들어 있는 재간접 펀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편입할 펀드의 선정과

자산 배분비율 조절을 담당합니다. 자산배분형펀드는 증권사 혹은 보험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18

퇴직연금 대표상품 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대표상품 제도'는 DC형과 IRP 고객의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상품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객은 여러 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한 번의 운용 지시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상품은 투자자의 투자위험 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안정형), 중수익추구형(중립형), 고수익추구형(적극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대표상품에 가입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상품을 한 번에 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의 관리는 개별 상품별로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 배분 비율을 변경하거나, 상품을 교체하려면 해당 운용 지시를 각각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랩어카운트나 모델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보험, 자산배분펀드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H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 연금, 쉽게 관리할 방법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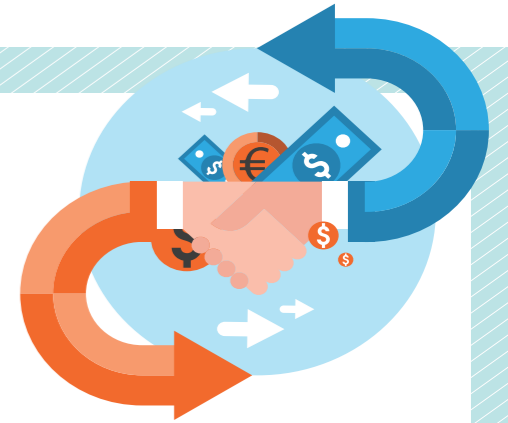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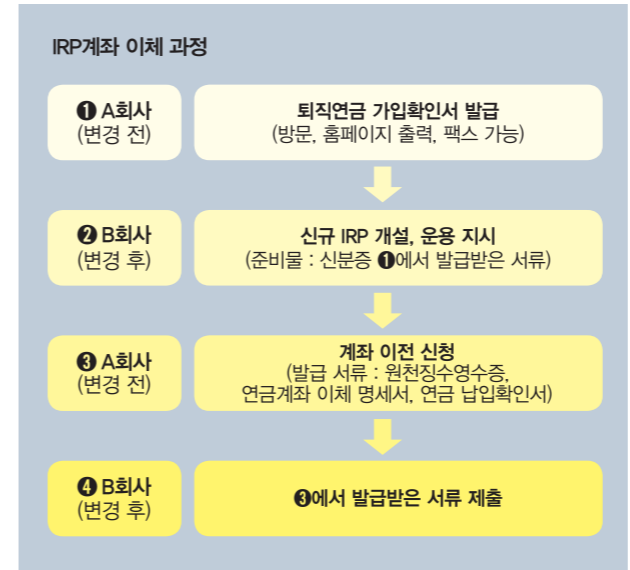
Q19

IRP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IRP 계좌도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A금융회사의 IRP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B금융회사로 계좌를 이전하려면 일단 A금융회사에 가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B회사를 방문해 새로운 IRP계좌를 만들고 운용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몇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A회사를 방문해 계좌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B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IRP 이전 절차가 조금 복잡하죠? 양쪽 회사를 두 번씩 방문해야 하니 말입니다. 앞으로 IRP 가입자가 많아지면 이런 절차들도 좀 더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20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데 IRP 계좌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좌와 IRP 안에 있는 자산은 각각 따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이지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IRP로 자금을 옮기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RP에서 자금을 빼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개인이 추가로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만 55세 이상의 은퇴자가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있는 자산을 세제상 불이익 없이 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 가입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요?

IRP·연금저축 자산운용 방법 비교

구분	IRP	연금저축
운용상품	펀드, 보험, 원리금 보장상품	
자산운용 규제	주식형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은 전체 적립금의 70% 이하로 제한	없음

Q DC형과 IRP를 중간에 찾아 쓸 수 있나요?

Q 21 주택 매입을 위해 중도 인출을 하고 싶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DC형과 IRP 가입

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

출 신청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

서를 본인의 퇴직연금이 가입돼 있는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택 구입에

의한 중도 인출 신청

은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登記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Q 22 다른 이유로 중도 인출을 할 수는 없나요?

DC형과 IRP의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이외에도 ▲전세 및 임차 보증금을 내야 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근로자나 그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

은 경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등에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에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Q 23 IRP에서 중도 인출을 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중도 인출을 하는 것은 '연금 외 수령'에 속합니다. 그리고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할지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달라지는데, IRP에 쌓인 적립금은 소득 원천에 따라 크게 퇴직급여, 추가납입금,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추가납입금은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세액공제받은 부분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받지 않은 부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립금이나 퇴직급여를 운용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다만 중도 인출을 했다고 해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사망, 이민, 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요양 중일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럴 때는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퇴직급여에 해당한다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추가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합니다.

Q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는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하나요?

Q 24 퇴직급여를 IRP 계좌에 이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둔 뒤 회사 인사팀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일시금으로 받았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 IRP 계좌에 넣고 싶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IRP 계좌를 개설한 뒤,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받으면서 냈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입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Q 25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이라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26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자신이 개설한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보험이나 신탁이냐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자산관리계약은 퇴직자가 선택하는 금융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은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지만 보험은 보험회사만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보험'일 경우

IRP 자산관리보험에서는 연금전환 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IRP 자산관리보험도 자유롭게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형 상품부터 국내의 주식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담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일단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가입자가 자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자산을 운영하고, 적용되는 이율도 보험사가 운용자산의 수익률과 시중금리 수준을 고려해 임의로 결정합니다. 단 최저금리는 보장됩니다. 이 최저금리를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데,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55~80세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종신연금 방식과 확정연금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연금 방식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고, 확정연금 방식은 10년, 20년 등 특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 방식을 택하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령 방식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이 '신탁'일 경우

IRP 자산관리신탁인 경우에는 보험처럼 종신토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퇴직금을 예금은 물론 펀드까지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고, 인출 방식을 바꾸거나, 추가 인출도 가능합니다. IRP 자산관리신탁에서 연금을 받는 방식은 정기연금 방식과 비정기연금 방식이 있습니다. 정기연금은 지급기간 혹은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이고, 비정기연금은 정기연금 이외에 따로 인출하는 것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넘어서 인출하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Q29 참조)

K IRP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Q 27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로자가 계산하기는 간단치 않습니다. 아래의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를 잠시 살펴볼까요.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제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30만~120만 원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12를 곱하면 환산급여가 나옵니다. 이후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의 35~100%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하면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이제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35%)을 곱하면 근속연수 1년당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복잡한데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X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 원X50만 원X(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 원X80만 원X(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 원X120만 원X(근속연수-20년)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517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35%)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퇴직급여
(-) 근속연수공제
(x) 배수 적용(X12)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35~100%)
(=) 퇴직소득 과세표준
(x) 소득세율(6~35%)
(=) 근속 1년당 산출세액
(÷) 배수 적용(÷12)
(x)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이것을 혼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2018년 중에 퇴직한다면 이 근로자의 퇴직소득세는 종전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값을 40% 반영하고, 위에서 설명한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한 값을 60% 반영하는

지금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2016년부터 변경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다른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했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기존 방식과 변경 방식

식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제도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요? 물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확한 계산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자신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고 싶은 근로자라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 프로그램)에 게시돼 있습니다.

Q 28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근로자의 IRP 계좌에 쌓여 있는 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둘째는 세액공제 및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근로자가 추가 적립한 돈, 셋째는 퇴직급여와 추가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금

먼저 퇴직급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는 퇴직시점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직장에서 퇴직한 김철수 씨가 퇴직급여 1억 원을 받으면서 이 중 1000만 원을 퇴직소득세로 냈다고 가정해보면, 김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 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기로 한다면 1000만 원의 퇴직소득세는 당장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70%이므로 700만 원(1000만 원×70%)이 됩니다. 이 돈을 한 번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김 씨가 10년간 연금을 받기로 했다면 연금소득세도 매년 70만 원(700만 원/10년)씩 내면 됩니다. 이 세금은 금융기관이 연금을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그렇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한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까요? 이는 추가 적립한 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입금할 때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므로 받을 때도 과세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급여와 추가적립금을 운용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령과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

연금(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Q 29

1년에 연금을 얼마나 수령할 수 있나요?

퇴직급여는 매년 연금 수령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아갈 경우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겠다고 해놓고, 초기에는 목돈을 찾아 쓰고 이후 매년 푼돈만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인출 금액이나 시기는 큰 차이가 없으면서 세금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평균금액}}{(11-\text{연금 수령 연차})} \times 120\%$$

다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최초로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점을 6년차로 계산합니다. 2013년 이전에 퇴직

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55세인 김성한 씨가 올해부터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보지요. IRP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1억 원이라면 김 씨의 올해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일까요? 답은 24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5(11-6)으로 나누어 다음 120%를 곱하면 됩니다.

Q 30

연금을 초과 수령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할 경우 국세청은 초과하는 금액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며, 이 또한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됩니다.

퇴직금을 초과해 수령하면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아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며, 세액공제받은 추가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초과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적립금에 대해서는 초과 수령을 해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초과 여부와 과세 방법	소득 원천	연금 수령 한도 이내	연금 수령 한도 초과
1	퇴직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율×70%)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율×100%)
2	세액공제 못 받은 추가적립금	과세 제외	과세 제외
3	세액공제 받은 추가적립금	연금소득세 (세율 3.3~5.5%)	기타소득세 (세율 16.5%)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분리과세

시장은 예측할 수 없어도 수익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1년 뒤 시장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는 금리+α의 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변동성을 관리하는 펀드로 자산을 키우십시오.

NEW

미래에셋 밸런스롱숏펀드

실정일 : 2015.07.20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 플러스채권펀드

12.99% 3년 수익률
BM 15.82% 3년 수익률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펀드

26.52% 3년 수익률
BM -2.64% 3년 수익률

HOT

미래에셋 스마트롱숏30펀드

5.20% 1년 수익률
BM 1.97% 1년 수익률

※ 자 펀드 기준

변동성 관리가 수익관리, 미래에셋 안정적 수익 추구형 펀드

미래에셋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증권투자자산타입(채권) 수익률(세전기준)

	1년	3년	설정이후
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3.16%	12.99%	24.24%
종류A	2.28%	10.13%	19.90%
BM	3.45%	15.82%	26.83%

실정일: 2012.04.09 순자산: 6,869억 원
 설정일자: 정기예금+50bp(50%)+KIS 종합채권지수(50%)
 환매방법: 제34회영업일 기준으로 제49회영업일 지급 *1) 15시 경과 후 환매 청구시 적용
 선행수수료: 납입금액의 0.7%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연 0.89%(운용: 0.30%, 신약: 0.04%, 판매: 0.50%, 일반사무: 0.02%)

미래에셋 배당프리미엄

증권투자자산타입(주식혼합) 수익률(세전기준)

	1년	3년	설정이후
배당프리미엄	1.67%	26.52%	48.49%
종류A	0.70%	22.96%	42.69%
BM	-4.32%	-2.64%	-3.47%

실정일: 2012.03.20 순자산: 4,804억 원
 BM: KOSPI200(70%)+HMM(30%)
 환매방법: 제23회영업일 기준으로 제49회영업일 지급 *1) 15시 경과 후 환매 청구시 적용
 선행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연 0.96%(운용: 0.45%, 신약: 0.03%, 판매: 0.46%, 일반사무: 0.02%)

HOT 미래에셋 스마트롱숏30펀드

증권투자자산타입(채권혼합) 수익률(세전기준)

	6개월	1년	설정이후
스마트롱숏30	1.67%	5.20%	10.93%
종류A	1.26%	4.36%	8.96%
BM	1.16%	1.97%	6.54%

실정일: 2014.03.12 순자산: 2,310억 원
 BM: KIS국공채1~2년 x 100%
 환매방법: 제34회영업일 기준으로 제49회영업일 지급 *1) 15시 경과 후 환매 청구시 적용
 선행수수료: 납입금액의 0.4% 이내
 환매수수료: 없음
 총보수: 연 0.80%(운용: 0.45%, 신약: 0.03%, 판매: 0.30%, 일반사무: 0.02%)

NEW 미래에셋 밸런스롱숏펀드

증권투자자산타입(채권혼합)

	6개월	1년	설정이후
밸런스롱숏	1.67%	5.20%	10.93%
종류A	1.26%	4.36%	8.96%
BM	1.16%	1.97%	6.54%

실정일: 2015.07.20 순자산: 54억 원
 설정일자: KIS국채 1~2년(80%) + KOSPI(20%)
 환매방법: 제34회영업일 기준으로 제49회영업일 지급 *1) 15시 경과 후 환매 청구시 적용
 선행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총보수: 연 1.15%(운용: 0.55%, 신약: 0.03%, 판매: 0.55%, 일반사무: 0.02%)

다양한 안정적 수익 추구형 펀드 **미래에셋 로우볼인덱스펀드 / 미래에셋 배당과인컴펀드 / 미래에셋 글로벌인컴펀드**

■ 출처: 제로인 ■ 기준일: 2016.05.31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보수/수수료/환매방법 등에 관하여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십시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화표시 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류형 클래스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고 노화 연구 권위자 박상철 석좌교수 “노화는 퇴화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내는 성스러운 변화”

박상철 교수는 노화 연구의 최고 전문가다. 세월이 가면 늙는 게 당연한 듯하지만 사실 우리는 아직도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박 교수는 계속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해왔다. 특히 실험실에서만 들여다보지 않고 실제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현재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 전공 석좌교수로 여전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교수에게 '노화와 노화 방지'에 대해 물어봤다.

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최근 고령화사회가 현실화되면서 '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자연히 노화 '방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노화 방지가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노화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노화라는 것은 인간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풀어야 할 숙제였어요. 불로장생을 주제로 한 많은 신화에서 보듯이 인간은 오랜 옛날부터 늙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랐죠. 그런데 역사를 보자면 19세기까지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세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1세기 만에 30년이 늘어 80세가 된 거죠. 옛날에는 장수하는 사람이 드무니까 '장수하는 사람은 원래 정해져 있다'는 식의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수명 연장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노화가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어요. 유전자 때문이다,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속에 쌓이는 쓰레기 때문이다 등등. 그렇게 해서 나온 이론만 400개가 넘어요. 그것은 곧 우리가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죠. 다만 21세기 들어서 수명 연장이 가능할 거라는 자신감은 더 커졌어요. 이것을 나는 '노화혁명'이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칠십 노인을 아무것도 못 하는 무력한 존재로 보았지만, 이

제 백세 시대가 되니까 칠십대가 먼 산 보고 살 수만은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선생님이 전에 “노화는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요?

“제가 1990년대에 한 실험이 있어요. 늙은 세포와 젊은 세포의 차이점이 뭔지 여러 가지를 비교했었어요. 그중 하나가 자외선을 잔뜩 쏘여서 '어떤 세포가 빨리 죽는지'를 살펴본 실험이었어요. 늙은 세포가 빨리 죽을 거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과는 젊은 세포만 죽었어요. 자외선을 아무리 쬐어도 젊은 세포만 죽고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똑같은 실험을 2년간 수백 번을 더해봤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어요. 그 결과를 갖고 논문을 냈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요. 그때 나온 이야기 중에 '그건 세포니까 그렇지, 개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였어요. 그래서 젊은 쥐와 늙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다시 했어요. 독약을 주사했더니 젊은 쥐가 먼저 간과 신장에 손상이 왔어요. 늙은 쥐는 괜찮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칠십이 넘으면 '절대 소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식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대신 잘 먹고 많이 움직이라고 해요. 충분한 영양, 운동, 좋은 관계, 사회 참여 이 네 가지가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이 크게 히트를 쳤어요.”

어느 정도 성숙하면 세포가 보호막을 친다는 이야기군요.

“바로 그거예요. 증식을 포기하는 대신 생존한다. 그게 노화라는 거지요. 이렇게 본다면 노화는 퇴행이 아니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주 성스러운 행위인 거예요. 일종의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어느 한쪽을 얻으면 다른 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노화는 증식과 보존의 트레이드 오프인 셈이죠.”

늙는다는 게 생각만큼 나쁜 건 아니군요. 선생님은 장수 노인들을 찾아가 현장 조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길로는 우선 먹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소식(小食)하라는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비만 같은 문제가 있으니 소식하는 게 좋지만 노인들에게는 소식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아요. 특히 칠십이 넘으면 '절대 소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소식하면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대신 잘 먹고 많이 움직이라고 해요. 그다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부, 친구, 자식, 이웃 등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는 겁니다. 그게 곧 행복이에요. 그다음은 참여. 무엇이든 꼭 해야 해요. 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봉사도 좋고,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영양, 운동, 관계, 참여, 이렇게 네 가지만 챙기면 좋다고 봐요. 이런 건 내가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위 라이프스타일 교정이라는 거죠. 무슨 제도나 사회적 변화가 선행될 필요도 없는 거고...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덧붙이자면, 보약 같은 것은 먹지 마세요. 밥은 밥이고, 식은 식이고, 약은 약인데, 식약동원(食藥同源)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식과 약은 뭐가 다르냐? 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100% 산화돼요. 쓰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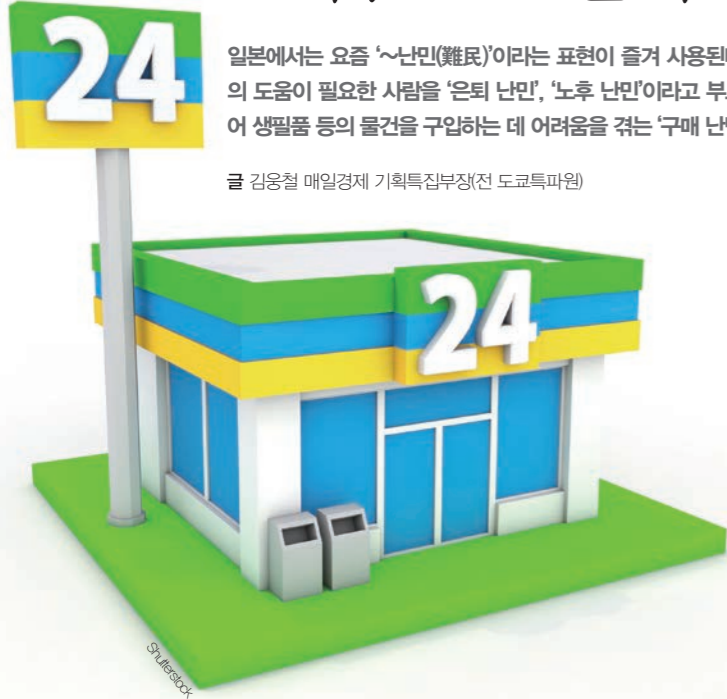
기가 안 생기지요. 비만은 뭐냐? 그건 여분의 영양이 축적되는 건데 쓰레기가 아니에요. 세포 속에 남지 않고 아예 축적되는 공간이 달라요. 지방세포나 간세포처럼 몇 군데 축적되는 곳이 있는데 그 외는 없어요. 반면 약은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하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우리 몸에서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소변을 통해 나가야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배출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약이 좋은가? 소량으로도 효과가 좋은 약, 소변으로 잘 빠져나가는 약이 좋은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세포에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독이에요. 그러니까 약은 꼭 필요할 때만 먹어라, 상용하지 말라는 게 제 지론이에요.”

은퇴자, 혹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충고 한마디 해주세요.

“은퇴생활이란 이전 생활의 연속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생활이에요. 흔히 그걸 간과하죠. 이전에 했던 것에서 뭔가를 연장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새것을 배우고 새것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교육이에요. 다음 오십년을 준비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서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라. 이게 제가 하는 얘긴데 그렇게 한 친구들은 지금 다 잘살고 있어요. 대학을 새로 다닌 친구도 있고, 국내에서는 걸끄럽다고 아예 외국에 가서 하는 친구도 있고,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택시 운전하는 친구도 있는데 다들 행복해해요. 내가 옛날에 장관을 했다고 해서 지금도 장관은 아니잖아요? 옛날 옛적에 장관이지. 그렇게 옛날이야기만 하다가 후배들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하면 어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가짐을 바꿔야 해요.”

박상철 • 現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유한의학대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 국제노화학회 회장 역임
•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편의점 난민’을 구하라



일본에서는 요즘 ‘~난민(難民)’이라는 표현이 즐겨 사용된다. 노후 대비가 부족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은퇴 난민’, ‘노후 난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변에 가게가 없어 생필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매 난민’이라는 말도 있다.

글 김용철 매일경제 기획특집부장(전 도쿄특파원)

최근 일본에서 ‘편의점 난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쉽게 말해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다. 도보로 편의점 이용이 용이하면 ‘편의점 생활권’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편의점 난민’이라는 것이다.

편의점 난민은 올해 초 일본의 한 금융기관 연구원이 내놓은 <편의점 난민-소매점에서 ‘라이프 라인(Life Line)’으로> 라는 책이 공감을 얻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저자인 미쓰시미 토모모(三井住友) 트러스트 연구소의 다케모토 료타 연구원은 이 책에서 일본 전국의 ‘편의점 생활권’을 조사했다. 2015년 7월 시점에서 전국의 편의점 점포망이 커버하는 도보권 인구를 산출한 것이다. 특히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편의점 점포 입지와 고령자 주거지역의 지리적 관계를 조사해 노인들이 편의점 생활 혜택을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은 ‘편의점 난민’

조사 방법으로 먼저 거주지와 편의점을 도보로 왕복하는 데

10분 이내의 거리를 편의점 생활권 기준으로 설정했다. 거리 기준으로는 일반인의 경우 편의점이 거주지 반경 500m 이내,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보행 속도를 감안해 300m로 적용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편의점 생활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비율은 전국 평균 39%에 그쳤다. 고령자 61%, 그러니까 **일본 노인 10명 중 6명은 도보로 편의점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편의점 난민’**이라는 것이다. 편의점 난민 비율이 60%가 넘는 셈이다.

물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도쿄 도심의 경우, 편의점의 고령자 커버율은 86%로 매우 높았는데, 도쿄 도심에는 119m 간격으로 편의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쿄 등 대도시를 제외한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 그중에서도 미야기현의 쓰쿠바시의 경우 고령자 편의점 난민 비율이 80%가 넘는 등 시골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편의점 난민의 실태가 심각했다.

편의점 난민은 초고령화사회 일본에서 문제가 되어온 ‘구

“일본 편의점은 노인들에게 간단한 건강검진과 건강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의 치매환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편리한 가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적극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매 난민과 맥락을 같이한다. 생필품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매 난민은 ‘구매 약자’라고도 부른다.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의 시골이나 산골 같은 곳에서는 마을 상점이나 슈퍼가 폐점을 하고, 대중교통마저 끊기면서 혼자 힘으로는 장보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고령자 구매 난민은 전국에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인들 “편의점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 일본에서는 왜 편의점에 주목하는 걸까? 일본의 편의점이 생활 잡화점을 넘어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인프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는 5만5000개 정도의 편의점 점포가 있다. 한 달에 편의점을 찾는 소비인구는 무려 14억 명. 연간 매출액은 10조 엔, 한국 돈으로 100조 원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우리에게도 이름이 익숙한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등의 편의점 업체들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편의점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다.

요즘 일본 편의점은 단순한 일용품 등의 물건을 구매하는 곳에 그치지 않는다. **쌀, 도시락 외에 식료품이나 생활 잡화를 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금 자동인출(ATM) 등 금융 서비스와 공공요금, 세금 수납 대행 등의 생활 서비스, 최근에는 인감증명서와 주민표(주민등록) 복사본을 발행하는 행정 서비스까지 시작했다.** 여기에 택배물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택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편의점이 사실상 주민들의 종합생활서비스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일본 사람들의 편의점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편의점이 집 주변에 있으면 그만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어 특히 고령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편의점을 생활 인프라 시설로 인

식하게 된 데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도호쿠 일본 대지진 때의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재해 당시 편의점이 피해지역에 지원물자를 신속히 제공하고, 피난민에게 수도와 화장실을 제공하는 등 공적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이후로 편의점을 생활 인프라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편의점, ‘편리한’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진화 중

이런 분위기에 맞춰 일본 편의점 업체들도 고령화 등 소비자들의 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성인용 기저귀나 돌보기안경 등 고령자용 생필품 품목 수를 대폭 늘리는가 하면, 고령자들의 만남의 장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노인 친화적으로 적극 변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간단한 건강검진은 물론 건강 상담까지 제공하는 편의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또 **홀로 사는 노인에게 물건을 배달할 때 노인들의 근황을 살펴 지자체에 전달하는가 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마을의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등 고령사회 솔루션으로의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지난 2009년 편의점 업체들이 가맹하는 일본 프랜차이즈체인협회는 ‘사회 인프라로서 편의점 선언’을 하면서 환경 부담 감축, 소비자 편리성 증대, 마을의 안전 및 안심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목표를 내걸기도 했다.

<편의점 난민>의 저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의점이 이제는 편리하다는 뜻의 ‘컨비니언스(Convenience) 스토어’를 넘어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에센셜(Essential) 스토어’로 불려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에 뒤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돼가고 있는 한국도 앞으로 편의점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 시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 인생을 관통한 영화

어려서는 어른의 세계가, 나이드니 자식의 세계가 궁금해지는 영화 '대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답이 쉽지 않지만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영화를 꼽으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고등학교 이후 줄곧 대답이 하나였기 때문이다. 시간의 스펙트럼을 뛰어넘어 내 인생을 관통한 영화, 바로 '대부'다.

글 김봉석 문화평론가, 영화평론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이나냐는 질문을 받으면 늘 망설인다. 20대와 30대 때는 시기마다 분명하게 답할 수 있었다. 양덕창 감독의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이라거나 팀 버튼 감독의 ‘배트맨 2’라거나 등등. 하지만 마흔이 넘어가면 서부터는 수많은 것들 중 하나만 고르는 일이 힘들어졌다. 이 영화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영화는 걸작은 아니지만 어떤 장면이 너무 좋고 등등 고려할 지점과 스펙트럼이 너무 많아진 것이다. 아마 나이 탓일 것이다. ‘조금 더 너그럽게, 혹은 조금 더 다양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 대신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 것도 생긴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진다고 할까?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영화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대부’라고 단호하게 답한다. 젊었을 때도 ‘대부’라고 답하기는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말 겨울방학, 서울극장에서 ‘대부’를 봤다. 보기 전에는 무슨 영화인지 잘 몰랐다. 무턱대고 들어간 극장 안에서 영화가 시작되자 확실하게 느꼈다. 내가 경험하고 알던 것과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쩌면 이것이 진짜 어른의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새로운 대부가 된 마이클이 아내에게 말한다. “배제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태연하게, 너무나 단호하게 거짓말을 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았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는 냉정한 세계를. ‘대부’를 본 후로 어른이 되고 싶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른의 세계를 알고, 그들의 세계에 섞이고 싶었다.

어른의 세계에 매료되게 한 영화

‘대부’는 할리우드 갱스터 영화의 고전이다. 마틴 스코르세지 감독이 ‘비열한 거리’, ‘좋은 친구들’, ‘카지노’ 등을 통해 갱스터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후에도 ‘대부’의 위대함은 바래지 않았다. 고전적인 갱스터 영화의 정점을 찍은 작품으로서 ‘대부’는 영원히 칭송받을 것이다.

영화 ‘대부’에 얽힌 이야기는 많다. 한때 최고의 청춘 스타였지만 점점 할리우드와 멀어지던 이단아 말런 브랜도는 입에 숨을 가득 물고 웅얼대는 발음을 보여주면서 실제보다 훨씬 나이 많은 돈 코르레오네 역에 발탁되었다. 코폴라는 아직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신인 감독이었지만 이탈리아계라는 이유만으로 이 영화의 감독을 맡게 되었고, 신인 배우인 알 파치

노를 캐스팅하기 위해 제작사를 끝까지 설득해 캐스팅을 관철시켰다. 촬영장에서의 스트레스, 마피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부’는 무사히 완성되었고 갱스터 영화의 전설이 되었다.

1947년을 배경으로 하는 ‘대부’는 이탈리아 마피아 보스 돈 코르레오네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단순한 범죄조직의 두목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갖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는 돈 코르레오네를 사람들은 ‘대부(代父)’라고 부른다. 가수인 양아들이 캐스팅 고민을 털어놓자 돈 코르레오네는 문제를 해결해준다. 캐스팅을 거부하는 제작자의 침대에 그가 아끼던 말의 머리를 잘라 던져넣은 것이다. 온화하고 다정한 가장이자 지역 유지인 돈 코르레오네의 또 다른 얼굴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냉혹한 악당이다.

돈 코르레오네에게는 아들이 셋 있다. 큰아들 소니는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다. 둘째 아들은 유약하고 놀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애초에 내쳐졌다. 막내인 마이클은 대학을 다니며 마피아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자식 농사에서만은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피아 조직 간에 분쟁이 생기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진다. 큰아들 소니가 살해당하고, 셋째 아들 마이클이 조직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소니는 다혈질이고, 모든 상황에 너무 감정적으로 화급하게 대처해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해 요절하고 만다. 자신과 달리 어엿한 엘리트로 성장하기를 바랐던 마이클이 돈 코르레오네의 뒤를 잇는다. 마이클 자신도 마피아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원했지만 세상이란, 운명이란 한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고 다정했던 마이클은 마피아의 사업에 개입하면서 점점 냉혹해지고 잔인해진다.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일은 결코 순탄할 수가 없다. 사랑했던 사람마저 배신해야 하고, 가족마저 죽음으로 내몰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 것이다.

자식들이 살아가는 길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

‘대부’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 후 몇 번 더 보았을 때도 주로 마이클의 변화에 눈이 갔다. 라이벌 마피아의 조직원을 살해하고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로 도망쳤던 마이클은 그곳에서 시골 아가씨에게 반해 결혼까지 한다. 하지만 시칠리아까지 쫓아온 라이벌 조직에게 아내를 잃은 마이클은 다시 뉴욕으

로 돌아와 보복을 시작한다. 착하고 순한 대학생이었던 마이클은 복수의 화신이 된다. 뉴욕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둔다. 그러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한다. 아니 모두에게 거짓말을 하고, 패밀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은 자신의 가족을 붕괴시킨다. 조직으로서의 패밀리와 가족으로서의 패밀리가 양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돈 코르레오네의 시대가 저물면서 모든 평화는, 모든 희망은 끝났다. 거대한 비즈니스만 존재할 뿐이다.

젊어서 영화를 봤을 때는 마이클에 공감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마이클의 변화보다 돈 코르레오네의 심정에 마음이 간다. 큰아들 소니를 잃고, 평범한 시민이 되기를 바랐던 마이클이 냉혹한 마피아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돈 코르레오네는 손자들과 놀다가 정원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는다. 그나마 등장인물 중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다. 보스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마이클이 뒤를 이은 후, 돈 코르레오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이벌 조직과의 분쟁도 막을 내렸으니 다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고 믿었을까? 모든 것을 얻은 막내 마이클이 훌륭하게 자신의 뒤를 이어 조직과 가정을 이끌어갈 거라고 여겼을까? 아니면 자신이 죽은 후,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거짓과 배신만이 판치는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리라는 것을 짐작이나 했을까?

자식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부모에게서 점점 더 멀어진다. 부모가 살아온 시대와 자식이 걸어갈 시대는 아주 다르다. 부모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방향을 제시해줘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살아갈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르니까.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대부’에서 돈 코르레오네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이유도 거기 있다. 돈 코르레오네는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자신의 품을 떠나, 자신이 갔던 곳을 넘어 더 멀리로 나아가는 마이클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점점 궁금해진다.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공감할 것이다. 나와 비슷하지만 나와는 다른 자식들이 살아가는 길, 그들의 미래가 한없이 궁금해진다.

김봉석 · 문화평론가, 영화평론가
· 에이코믹스 편집장
· 브루트 편집장
· 씨네21 기자
· 한겨레신문 기자

꿈을 이루기 좋은 곳, 시골

글 남이영 작가, <명랑 시인의 귀촌 특강> 저자



꿈이 있나요?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장래 꿈'은 어른이 되면서 까맣게 잊고 지낸다. 초등학교 이후에는 이 말을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스스로 생각하거나 말해본 적도 없다. 학생 생활조사서에 장래 희망, 취미를 적어낼 때 잠깐 고심해 적어내고 그만이다. 서류에만 남아 있는 '장래 희망'에 대해 누구 하나 관심이 없다.

설령 관심이 있어도 '그래?' 하고 더 이상 발전적인 대화는 없다. 부모와 교사, 본인조차도 적어내는 데 의의를 두고 만다. 장래 희망에 대해 어느 누구도 뭘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빈칸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창시절은 지나간다.

장래 꿈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어린 시절은 사라지고 어느덧 시간에 쫓기는 어른이 된다. 어쩌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나도 오랫동안 꿈은 커녕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조차 못하고 쫓겨난 생활에 코를 빠뜨리고 허덕이며 살았다. 눈앞에, 발등에 떨

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야근과 철야로 파김치가 되도록 일에 파묻히는 생활만 이어졌다. 마치 끝나지 않는 터널을 내달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휴일에 쉴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집에까지 회사 일을 가져와 스스로를 혹사했다.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미래는, 내 꿈은, 하는 생각은 사치나 다름없었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할 새도 없이 바쁘기만 했다.

이제 8월이면 귀촌한 지 만 2년을 맞이한다.

귀촌하기 전의 길고 긴 세월을 돌아보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아등바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걸 알고 나면 자기연민이 몰려와 말할 수 없이 속상하다. 좀 더 일찍 벗어날 궁리를 해야 했다고 한탄한다. 하지만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늦게라도 귀촌한 용기에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귀촌했다고 없던 돈이 샘솟듯 나오는 것도 아닌데 불안은 점점 멀어지고 날마다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다. 자주

웃음이 난다. 노력한 만큼 무럭무럭 자라는 텃밭에서 수확하는 기쁨은 위안까지 덤으로 얻는다. 카드를 긁을 환경이 아니니까 지출도 줄어든다. 아등바등하던 생활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시골에서 일거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살아갈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5월에 우연찮게 미래에셋생명과 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행복 미래설계 공모전-10년 후, 내가 꿈꾸는 삶'에 응모하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수상을 받게 돼서 100만 원이란 상금과 부상으로 말레이시아 여행을 갈 일이 생겼다. 내 형편에, 더군다나 시골에서 100만 원이면 큰돈이다.

당신도 꿈꿀 수 있다. 시골이라 가능하다.

귀촌하지 않았으면 10년 후는 커녕 1년 후도 꿈꿔보지 못하는 생활이라 언감생심 눈여겨볼 수도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공모전에 응모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고 있는데 어찌 미래를 꿈꿀 수 있겠는가. 그동안 시와 소설 공모전을 기웃거리본 경험밖에 없던 내게 이상하게도 이번 공모전이 눈에 들어왔다.

귀촌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에 맞춰 각종 공모전에 도전해보라고 독려한 일은 있어도 내가 직접 공모전에 참가하기는 난생처음이다. '10년 후, 내가 꿈꾸는 삶'이라는 말과 '행복 미래설계'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다. 어?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싶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즐거운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귀촌하지 않았다면 10년 후? 하고 암울한 기분에 빠져들고 말았을 거다. 구체적으로 쓰라는 응모 요강에 맞춰 하나씩 그려나가며 미래를 설계해나갔다. 계획을 세우며 가능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점검해나갔다. 모두 귀촌한 후에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을 기초로 한 것이라 이대로만 하면 10년 후엔 꿈이 이뤄질 것만 같았다.

글 쓰는 작가가 아닌 '귀촌 연구소' 소장으로서 살아갈 길을 찾아 한 해 한 해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할 일을 설정해나가는 세월이 실감났다. 인생 욕심에 처음으로 하는 일에 흥분이 되었다. 꿈이 있으면 흰머리도, 주름도 청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기를 옆에 두고 계획에 맞춰 수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감안해 그려나갔다. 60세, 63세, 65세..., 드디어 70세가 되었다.

궁리 끝에 '귀촌 연구소 할머니 소장의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제목도 붙였다. 제목까지 붙이고 나자 뭉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다. 다시 읽으면서 연도별로 할 일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렇게 꿈을 적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됐다. 이런 기분도 처음이다. 다 미래에셋생명과 MBC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린다.

귀촌하면 이렇게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귀촌하면 투자할 게 이렇게 많다, 하는 제안에 보태서 이제는 귀촌하면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의 인생 설계와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권한다. 상대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맞춤형 상담을 하는 일도 늘어났다. 비록 남의 인생이지만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즐겁다.

또한 길이 여러 갈래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하는 자신감도 생겼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에 놀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공모전에 참가하고 난 후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번 설계를 해보자, 하는 욕구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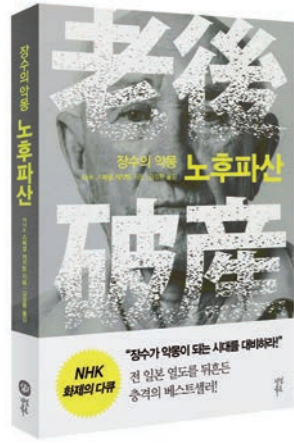
그 옛날 초등학교 때처럼 장래 희망을 세웠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골라보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얼 해야 하는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고 글로 쓰니까 더 피부에 와 닿았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믿음이 싹텄다.

그다음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나이를 잊고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다. 마치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온 후처럼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울렸다. 참으로 오랜만이다.☺

남이영 미술을 전공하고 문학마당을 기웃거리며 살았다. 글을 발표하고 시집을 내며 이와 관련한 직업을 전전하며 살기에는 세상이 벅찼다. 시골집을 구하기 위해 9개월간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담은 <억으로 수도권에서 내 집 갖기>와 <명랑 시인의 귀촌 특강>을 발간하고, 현재는 경기도 이천에서 '귀촌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가혹한 미래 <노후 파산>

노후 파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다산북스/ 1만5000원

글 이상건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sg.lee@miraeasset.com

통장에 잔고가 없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 삶의 내면은 얼마나 절망적일까. 매일매일 줄어드는 잔고를 보면서 삶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이런 절망스럽고 두려운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 '노후 파산'이란 이름으로 말이다.

그동안 말로만 회자되던 노후 파산 문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은 2014년 9월 28일 방송된 일본 NHK의 스페셜 프로그램 '노인표류사회-노후 파산의 현실'이 방영되면서부터다. 노후 파산에 임박했거나 파산한 노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일상을 취재한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책 <노후 파산>은 당시 방송 시간상 다루지 못했던 내용까지 덧붙여서 만든 르포르타주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노인들이 노후 파산에 빠지는 메커니즘은 대개 비슷하다. 부부가 살아 있고 건강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죽으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병이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간병 관련 비용도 발생한다. 점차 통장의 잔고는 줄어들고 노후 파산은 현실이 된다. 노후 파산에 임박한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다름 아닌 '살기 싫다'는 것. '살기 싫다'는 문장을 만날 때마다 현실의 처절함에 몸서리를 치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노후 파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탓에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액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줄여왔다. 정부 지원이 줄면 자구 노력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하는데 이도 어렵다. 소득이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 1인당 연금액도 줄고, 일하는 세대의 소득도 줄어들다 보니 연젠가는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가족의 지원도 끊기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문제만큼은 일본의 전철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파산 문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10년 정도만 지나면 노후 파산이 우리 삶의 일상 풍경이 될 수도 있다.

노후 파산은 고령화가 만들어놓는 어두운 그늘이다. 더 막막한 것은 노후 파산이 극빈곤층만이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에게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개인도, 국가도, 사회도 하루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험을 볼 때, 노후 파산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아진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알.립.니.다.

여러분이 은퇴 전문가입니다!

<은퇴와 투자>는 항상 독자 여러분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은퇴와 투자>를 읽고 느낀 점이나 기사에 대한 생각, 다뤘으면 하는 주제 등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이름, 주소,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이 채택된 독자 여러분께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서적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메일 rni@miraeasset.com **팩스** 02-3774-2084



vol.49

발행일 2016년 6월 10일(통권 49호) **발행처** 미래에셋자산운용 **발행인** 정상기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

편집위원장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 **편집위원** 이상건 상무, 김동엽 이사, 윤치선 연구위원, 안태관 선임연구원

제작 대행 동아일보사 출판국 **편집장** 김경화 **아트디렉터** 최경희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26, 동관 20층(미래에셋 센터원빌딩)

편집 문의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구독 문의** 02-361-1095 **인쇄** 삼성문화인쇄(주)

등록 2010년 5월 27일(등록번호 서울중 라 00390) **정가** 2000원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기구독 안내

<은퇴와 투자>는 격월로 발행하는 은퇴 가이드 잡지입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국내 2년간 구독료는 2만 원입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361-1093 mites337@donga.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870-01-0149-959, 예금주 동아일보(CMS코드 77777)

행복한 은퇴 발전소

국내 최초
노후 준비 팟캐스트

연금, 투자, 건강, 일자리...
김부장도 박차장도 이과장도
궁금한 노후준비의 모든 것!

이제 “행복한 은퇴 발전소”와
함께 풀어보세요.

매주 30분 “행·은·발” 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집니다!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 발전소” 를 만나는 법

- “팟빵” 앱, 애플 podcast 에서 “행복한 은퇴 발전소” 검색 및 다운로드 (매주 목요일 업로드)
- “팟빵” 지식라디오 코너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방송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 “팟캐스트” 배너 클릭
- 페이스북에서 “행복한 은퇴 발전소” 검색